

2021년 상반기 인권경영위원회 개최결과

2021. 4. 16.(금), 감사관

1 위원회 개요

☐ 관련근거

- 인권경영규정 제21조(위원회 운영)
- 2021년 인권경영 기본 계획(감사관-126)

☐ 추진목적

- 인권경영 전문위원 의견 청취 및 재단 주요 인권경영 추진현황 보고

☐ 위원회 개요

- 일 시: 2021. 4. 15.(목), 14:00 ~ 16:00
- 장 소: 서울관광재단 4층 중회의실(시민관광아카데미 A,B)
- 참 석 자: 총 7명
 - 내부위원(3): 이재성 대표이사, 우택규 노동이사, 정지윤 사무국장
 - 외부위원(2): 한범수 교수, 권병진 변호사
 - 간 사(1): 김청동 감사관
- 회의내용: 2021년 인권경영 기본계획 보고 등 관련 안건 협의

☐ 위원회 안건 및 결과

연번	구분	안 건 명	의결내용
1	보 고	2021년 인권경영 기본계획	접 수
2	보 고	인권경영 구제절차 매뉴얼	접 수
3	의 결	인권경영 구제절차 구제책임관 선임	가 결
4	보 고	인권경영선언문 개정 계획	접 수

2 회의록

☐ 보고 1. 2021년 인권경영 기본계획

- 김청동 간사가 2021년 인권경영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함
- 기타 이의나 질문이 없이 원안 가결

☐ 보고 2. 인권경영 구제절차 매뉴얼

- 김청동 간사가 2020년 12월에 수립한 인권경영 구제절차 매뉴얼에 대하여 설명함
- 이재성 위원장이 인권 구제절차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함
- 한범수 위원이 실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예상치 못한 미비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함. 이후 타 기관의 인권침해 사례를 미리 숙지와 함께 대비하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의견을 남김. 또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일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으나, 보완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인지를 한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의견을 남김
- 권병진 위원이 구제 절차 초기 단계 중 조정 및 권고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축소 종결의 소지가 있음을 우려함. 외부위원인 인권구제책임관이 해당 과정에 주체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남김

- 정지윤 위원이 인권경영위원회와 인권구제위원의 차이가 없는지 질의함
- 김청동 간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는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, 기관의 규모 등 경우에 따라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을 설명함. 재단은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인권구제위원회와 인권경영위원회를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임을 답변함
- 우택규 위원이 사건 조사 및 조정 단계에서 구체적인 명문화된 사항이 있는지 질의함
- 김청동 간사는 따로 명문화된 사항은 없으나 해당 사항별로 인권구제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을 답변함
- 한범수 위원이 한번 인권침해사고가 발생 되면 조직과 내부적인 사기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있음을 강조하며 사전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을 남김

☐ 의결 1. 인권경영 구제절차 구제책임관 선임

- 권병진 위원이 한범수 위원을 구제책임관으로 선임하는 것을 추천함
- 한범수 위원이 선임되는 것으로 만장일치 결정됨
- 한범수 위원이 서울관광재단의 인권구제책임관으로서 활동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소감과 포부를 밝힘

☐ 보고 3. 인권경영선언문 개정 계획

- 김청동 간사가 인권경영선언문 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, 추후 서면을 통해 구체적인 인권경영위원회의 의견을 받을 것을 설명
- 기타 의견이나 질문사항 없이 원안 가결됨

붙임 회의 사진



회의 사진1



식순 설명



개회사



안전 설명